

한어 오노마토펬의 일본어 수용에 관한 일고찰*

- 二葉亭四迷의 작품에 나타난 첩어형을 중심으로 -

현영미**
sampras789@naver.com

이경규***
lk5120@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5. 수용과정에서 의미용법의 변화를 보인
한어 오노마토펬 |
| 2. 선행연구의 검토 | 5.1 『茫々(ぼうぼう)』 |
| 3. 일본어에 있어 한어 오노마토펬의 위상 | 5.2 『茸々(じょうじょう)』 |
| 4.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펬의 전거 유무 | 5.3 『悶々(もんもん)』 |
| 4.1 양쪽 사전에 모두 등재된 경우 | 6. 나가며 |
| 4.2 『大漢和辞典』에만 용례가 확인된 경우 | |
| 4.3 두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主題語: 한어(Chinese character), 오노마토펬(Onomatope), 후타바테이 시메이(Futabatei Shimei), 첩어
(Reduplication), 메이지기(Meiji period)

1. 들어가며

에도기까지 일본어는 고유어와 중국에서 차용한 한어가 서로 보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전 중국어 오노마토펬가 일본어에 유입, 수용되어 온 과정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특히, 메이지기 문헌에서 한자로 표기된 오노마토펬 중에서 중국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어는 114개의 비교적 적은 음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오노마토펬가 상당히 발달한 언어라 할 수 있다. 오노마토펬의 사용은 평소 의식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오노마토펬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3AA010).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강사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본어의 오노마토펬에는 출처(出自)에 따라 고유어 오노마토펬과 한어 오노마토펬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髭を茫々とはやしている」「悠々と去る」에서 「茫々」「悠々」는 중국어로부터 차용한 한어 오노마토펬이다. 이외에도 평소 일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중에는 오래 전 중국어의 음이나 상태를 나타는 어휘가 의외로 잠재하고 있는데, 시계소리를 나타내는 영어의 「チックタック(tick-tock)」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국어에서 차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한어 오노마토펬의 위상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는 문명개화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은 메이지기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메이지기는 언문일치 운동이 성행하여 한자사용을 줄이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활동한 언문일치체 작가인 二葉亭四迷의 작품을 대상으로 당시 한어 오노마토펬의 사용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이에 중국 고전문헌 및 일본 고전문헌의 용례를 수록하고 있는 대사전류를 토대로 그 전거(典據)의 유무를 밝히고, 의미용법에 변화를 보인 개별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한어 오노마토펬에 관한 종래의 연구 동향은 金田一春彦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가 고유어 오노마토펬에 대해 논할 때 언급되는 정도이다.

宮地裕¹⁾은 「漢語由来と見られるものは、別あつかいとしておきたい。漢語由来のものも、本質的にちがうものではないが、漢字の表意性が介在して、別に論ずるべきことがあると思われるためである。」라며, 한어 오노마토펬은 출처는 고유어 오노마토펬과 다르지만, 새롭게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어 오노마토펬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山田孝雄²⁾와 鈴木修次³⁾의 논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한어 오노마토펬의 일본어 음형 분류와 한자의 자수에 따른 분류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劉珣⁴⁾는 한어 오노마토펬 「茫々」「颯々」「悠々」를 대상으로 일본어의 수용과정과 의미변화에 대해 일본과 중국의 다양한 문헌의 실제 사용례를 토대로 고찰하고 있다.

1) 宮地 裕(1978)「擬音語・擬態語の形態論小考」『国語学』第115号

2) 山田孝雄(1940)「漢語の形態の觀察」『国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宝文官出版

3) 鈴木修次(1979)「擬態語の中の漢語」『漢語と日本人』みすず書房

4) 劉珣(2004)「漢語オノマトペの受容に関する研究」筑波大学博士学位論文

佐藤友紀⁵⁾는 메이지기 당시의 의음어·의태어의 표기 선택은 잡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택의 기준 하에 쓰이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한자표기된 오노마토펬의 특징으로 「莞爾」「怏然」「繁々」와 같이 중국의 한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한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새롭게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다수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의음어·의태어의 한자표기에 대한 조어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 한어 오노마토펬의 연구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한어 오노마토펬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국외 연구자 및 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연구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劉頴의 연구 이후로는 성과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전 중국어에 있어서의 오노마토펬의 분류를 어구성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⁶⁾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어구성에 의한 고전 중국어의 오노마토펬 분류

漢字一字			漢
漢字二字	疊語型		肅々
	双声型		恍惚
	疊韻型		模糊
	接尾辭型	虛辭型	～焉　：　忽焉
			～乎　：　確乎
			～爾　：　莞爾
			～然　：　嫣然
接辭型		～若　：　沃若	
	～如　：　突如其		
漢字三字			嫣々然
漢字四字			阿容々々

한어 오노마토펬의 대부분은 접미사, 첩어, 쌍성, 첩운형의 2자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 같은 한자를 반복하는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펬만을 대상으로 메이지기의 문학작품에서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첩어형 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 이유는 고유어 오노마토펬의 대표적인 어형 「ABAB형」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모국어 화자는 한어라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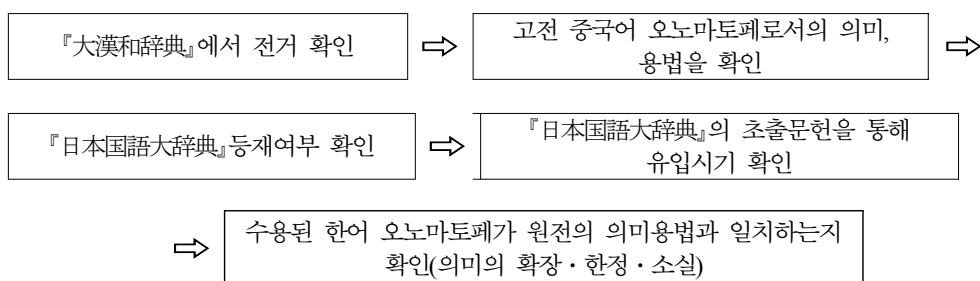
5) 佐藤友紀(2006)『明治期における擬音語・擬態語の漢字表記』『日本アジア研究』第3号

6) 한자의 자수에 의거한 분류 및 대표 용례를 나타낸 것이며,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나아가 한어 오노마토펜을 추출한 자료로는 최초의 언문일치 장편소설과 번역작품을 발표한 二葉亭四迷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5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⁷⁾ 이들 자료에서 추출한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펜을 『大漢和辭典』와 『日本国語大辭典』의 표제어 등재여부, 의미, 고전 문헌의 용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예) 人を呼留めながら叔母は悠々としたもので、まず煙草を環に吹くこと五六ふく、『浮雲(2)』

「悠々(ゆうゆう)」



위의 방법으로 각 개별어휘에 있어 유입과정을 조사하고 나아가 의미용법의 변화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일본어에 있어서 한어 오노마토펜의 위상

한어 오노마토펜은 본래 나라·헤이안기의 한시문(漢詩文)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및 문화적인 교류의 산물로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종래의 일본어 오노마토펜 연구는 고유어 오노마토펜을 중심으로 그 형태와 의미, 그리고 교육방법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어 오노마토펜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あくせく(齟齬)」 「うつうつ(鬱々)」 등과 같이, 한어 오노마토펜의 자음(字音)이 그대로 일본어로서 정착된 경우, 모국어 화자는 중국어로부터 차용된 경위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일본 정치가들이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는 한어 오노마토펜 중, 「肅々(しゅくしゅく)」는 다음과 같이 인터넷 및 신문기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7) 『浮雲』(1887), 『あひゞき』(1888), 『めぐりあひ』(1888), 『平凡』(1907), 『血笑記』(1908)

経財相、日銀金融緩和「肅々」と実行中」(2014年1月10日 日本経済新聞)

辺野古への基地移設、肅々と進めたい…菅長官 (2014年1月20日 読売新聞)

고요하고 숙연한 모양을 나타내는 한어 오노마토펜 「肅々」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2010년 1년간 「肅々」가 사용된 신문기사는 『朝日新聞』에서 213건, 『読売新聞』에서는 205건, 『毎日新聞』은 176건으로 합계 594건이 된다.⁸⁾ 이처럼 한어 오노마토펜은 오늘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전 중국어로서의 「肅々」는 새의 날개짓 소리 혹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소리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엄숙함을 나타낼 시의 사용은 극히 드물었다.

현재 일본어 오노마토펜 대사전에서는 한어 오노마토펜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언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현재 간행되어 있는 오노마토펜 전용 사전은 아래의 여섯 종류이며, 오노마토펜 연구를 위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 ① 天沼寧(1974)『擬音語・擬態語辞典』東京堂出版
- ② 浅野鶴子(1978)『擬音語・擬態語辞典』角川書店
- ③ 阿刀田稔子・星野和子(1995)『擬音語・擬態語使い方辞典 第2版』創拓社
- ④ 山口仲美(2003)『暮らしのことは擬音語擬態語辞典』講談社
- ⑤ 飛田良文・浅田秀子 (2002)『現代擬音語擬態語用法辞典』東京出版社
- ⑥ 小野正弘(2007)『日本語オノマトペ大辞典』小学館

오노마토펜	①	②	③	④	⑤	⑥*
ごうごう(轟々)	×	○	○	○	○	○
ぶつぶつ(沸々)	×	×	×	×	○	○
ぼうぼう(茫々)	×	×	×	○	○	○
もうもう(濛々)	×	○	×	×	○	○
ゆうゆう(悠々)	×	×	×	×	×	○

위의 간단한 조사를 통해서도 현재 일본어에 있어 한어 오노마토펜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①의 사전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편찬한 오노마토펜 사전인데, 한어 오노마토펜에 대해 고유어 오노마토펜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수록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②의 사전에서 金田一春彦은 오노마토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 논하면서 한어 오노마토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사전 수록을 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③의 사전에

8) 円満字二郎(2011)『政治家はなぜ「肅々」を好むか』新潮社 p.3

서는 한어 오노마토펜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대부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오노마토펜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이는 ④의 사전 또한 한어 오노마토펜의 언급은 피하고 있으나 일부 용례를 수록하고 있다. ①~④의 사전류와는 달리 ⑤와 ⑥의 사전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사전에서는 한어 오노마토펜을 존재를 인정하여 비교적 다량의 어휘를 수록하고 있었다.

4.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펜의 전거 유무

본고에서는 한어 오노마토펜의 수용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고전 중국어에 있어 오노마토펜의 사용상황을 개관할 수 있는 자료로서 『詩經』을 비롯한 『文選』 『白氏文集』 『論語』 등의 고전 문헌에서 용례를 추출하여 수록한 사전인 『大漢和辭典』⁹⁾를 사용하였다. 또한 일본어에 있어 한어 오노마토펜의 사용상황을 밝히기 위해 일본 고전문헌에서 용례를 추출하여 수록한 『日本國語大辭典』¹⁰⁾에서 그 전거의 유무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서 개별어휘에 따른 초출시기와 수용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는 총 60개의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펜이 사용되었다. 이는 『大漢和辭典』와 『日本國語大辭典』의 등재여부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수용시기에 대한 각 유형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이지기에 유입된 한어 오노마토펜인지, 고전 중국어 오노마토펜의 어구성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신조어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1 양쪽 사전에 모두 등재된 경우

1) 명치이전의 문헌에서 전거가 확인되는 경우

여기에서는 『大漢和辭典』과 『日本國語大辭典』 모두 등재되어 고전 중국어 오노마토펜에서 수용된 어휘로, 일본어에 있어서의 초출이 메이지기 이전의 문헌으로 확인된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9) 諸橋轍次(2000)『大漢和辭典』大修館書店

10) 小学館國語辭典編集部(2000)『日本國語大辭典』第二版 小学館

怡々(いゐい) 陰々(いんいん) 隱々(いんいん) 鬱々(うつうつ) 焰々(えんえん) 怏々(おうおう) 緩々(かんかん) 悸々(きき) 欣々(きんきん) 恂々(きょうきょう) 高々(こうこう) 晃々(こうこう) 煌々(こうこう) 轟々(ごうごう) 惚々(こつこつ) 滾々(こんこん) 昏々(こんこん) 颯々(さつさつ) 散々(さんさん) 洸々(じゅうじゅう) 熟々(しゅくしゅく) 徐々(じょじょ) 悄々(しょうしょう) 蕭々(しょうしょう) 深々(しんしん) 靑々(せいせい) 清々(せいせい) 切々(せつせつ) 漸々(ぜんぜん) 匆々(そうそう) 続々(ぞくぞく) 淡々(たんたん) 喋々(ちようちよう) 滔々(とうとう) 蕩々(とうとう) 得々(とくとく) 喃々(なんなん) 粘々(ねばねば) 漠々(ばくばく) 飄々(ひょうひょう) 浮々(ふふ) 沸々(ふつふつ) 憤々(ふんぷん) 紛々(ふんぷん) 片々(へんぺん) 蓬々(ほうほう) 茫々(ぼうぼう) 漫々(まんまん) 密々(みつみつ) 悠々(ゆうゆう) 碌々(ろくろく)

조사 결과, 대부분의 용례가 일본어에 유입된 시기가 근세 이전의 문헌을 통해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용례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 중에서, 「怏々(おうおう)」 「欣々(きんきん)」 「悄々(しょうしょう)」 「蕭々(しょうしょう)」 「靑々(せいせい)」 「滔々(とうとう)」 「蕩々(とうとう)」 「漠々(ばくばく)」 「飄々(ひょうひょう)」 「悠々(ゆうゆう)」 는 모두 중국 최고(最古)의 시가집 『詩經』에 사용례가 나타나고 있다. 「悄々(しょうしょう)」 「蕭々(しょうしょう)」 는 1200년경 문헌인 『海道記』 『梁塵秘抄口伝集』가 초출로 확인되며, 夏目漱石와 芥川竜之介 등의 근대작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용되어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二葉亭四迷는 언문일치를 주장한 작가로서 기본적으로 한자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그의 작품에서는 다양한 한어의 사용이 보이며, 이 중 한어 오노마토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다.¹¹⁾

2) 명치이후 문헌에 전거가 확인되는 경우

『日本国語大辞典』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메이지기 이전의 문헌에 출현하는 용례는 없고 메이지기의 문헌에서만 용례가 확인되는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펬는 다음과 같다.

「榮々(けいけい)」 「諄々(じゅんじゅん)」 「茸々(じょうじょう)」 「勃々(ぼつぼつ)」
「悶々(もんもん)」 「縷々(るる)」 「輓々(ろくろく)」

11) 현영미(2014) 「二葉亭四迷의 작품에 나타난 한어 오노마토펬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위의 용례 중, 「孤独で頼ることのないさま」「憂えるさま」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瑩々」는 중국 후한의 역사서인 『後漢書』를 비롯한 다양한 고전 문헌을 통해 사용례를 찾을 수 있는 한어 오노마토펜이다. 「瑩々」는 『浮雲』가 초출이며, 이후 夏目漱石 작품에서도 사용례가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瑩々」는 오로지 「孤独で頼ることのないさま」의 의미용법만이 확인되고 있는데, 메이지기에 유입될 당시부터 「憂えるさま」의 의미는 수용되지 않고, 「孤独で頼ることのないさま」의 의미만을 한정하여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로 「憂えるさま」의 의미용법으로 당시 여러 문헌에 전거가 보이는 한어 오노마토펜 「惔々」이 약 10년 앞서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悶々(もんもん)」 또한 본래 「無智を似て国を治めるさま」라는 의미로 사용된 전거는 찾을 수 없고, 「心は暗く明察を用いぬさま」「もだえ苦しむさま」의 사용례만 확인되었다.

이처럼, 한어 오노마토펜은 중국어로부터 수용된 복수(複數)의 의미 중,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부가 사멸되거나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4.2 『大漢和辞典』에만 등재된 경우

다음으로 『大漢和辞典』에 전거가 확인되지만, 『日本国語大辞典』에서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유입시기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活々(かつかつ)」가 유일하다.

(1) 言葉は勿論歩風身体のこなしにまで何処ともなく活々としたところが有って冴が見える。(浮)

『詩経』과 『文選』 등의 구체적인 자료에서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活々(かつかつ)」은 『日本国語大辞典』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본고의 고찰대상 자료인 『浮雲』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위의 용례문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日本国語大辞典』에 용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메이지기, 나아가 『浮雲』에서부터 수용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본고의 자료가 한 작가에 한정되어 있기에 언제 어느 문헌에서 사용되었는지의 판단은 보다 다양한 자료의 검증을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3 두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으로 『大漢和辞典』과 『日本国語大辞典』의 두 사전에서 전거가 없는 용례는 「喑々(げ

んげん)만이 유일하다. 『大漢和辞典』에서 한자 「噤」의 항목을 살펴보면 「噤々」는 표제어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전거를 확인할 수 없다.

(2) 毎晩夜つびて山で噤^{きんきん}み合つて噤々^{きんきん}吠え立てる。(血)

하지만 위에 제시한 용례문을 살펴보면, 「噤々」은 문중에서 동사 「吠える」를 수식하고 있어 오노마토편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형태 또한 첩어형을 띠고 있다. 이에 「噤々」는 메이지기에 고전 중국어 오노마토편의 조어법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일본제 한어 오노마토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의 자료에 한정하여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어시기 나 二葉亭四迷의 독자적 어휘인지에 대해서는 동시대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5. 수용과정에서 의미용법의 변화를 보인 한어오노마토편

여기에서는 한어 오노마토편 「肅々」「熒々」「悶々」과 같이 중국어 본래 의미로부터 일본어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한정되거나 소실되어 정착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1 「茫々(ぼうぼう)」

가장 먼저 살펴볼 한어 오노마토편 「茫々」는 劉玲(2004)의 연구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우선 「茫々」의 고전 중국어에 있어서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 (3) 天命玄鳥 降而生商 宅段殷土茫々 (詩經)
- (4) 荒草何茫々 自楊亦蕭々 (文選)
- (5) 高天黙々物茫々 各有来由至損傷 (白氏文集)
- (6) 忽々百年皆欲半 茫々万事坐成空 此生飄蕩何時定 (白氏文集)

중국어의 「茫々」는 상기와 같이, 「広々として遙かなるさま」「草木がやたらに茂りほうだいに一面はびこるさま」「見た様子がもうろうとしてはっきりしないさま」「物事に対する気構えや考え方がたしかでないさま」의 네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어에서 수용된 네 가지의 의미는 헤이안기의 한시문(漢詩文), 요곡(謠曲) 등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広々として遙かなるさま」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다.¹²⁾ 본고의 자료에서도 「広々として遙かなるさま」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日本国語大辞典』의 「茫々」항목을 살펴보면, 중국어에는 없는 세 가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어에서 새롭게 생겨난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髪やひげなどが多く乱雑に生えているさま」「波や風の音、またはそのあたり一面にひびきわたるさま」「火が炎をあげて燃えさかるさま」로, 이는 현대 일본어에 걸쳐 계승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현대어 사전 『大辞苑』『オノマトペ大辞典』를 통해 알 수 있다.

본고의 문헌을 포함하여 『日本国語大辞典』에 수록되어 있는 일본 고전문헌의 용례를 살펴 보아도 중국어로서 원래 지니고 있는 「見た様子がもうろうとしてはっきりしないさま」「物事に対する気構えや考え方がたしかでないさま」의 사용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劉玲(2004)는 고유어 오노마토펜 「ぼんやり」가 관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근세 이후 고유어 오노마토펜 「ぼんやり」는 위의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을 보이다가 점차 정착하여 「茫々」의 의미영역에서 축출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³⁾

본고에서는 劉玲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한어 오노마토펜 「茫然」의 관여를 지적하고자 한다. 「茫然」은 「広大なさま・遠くて果てしないさま」「漠然としてとりとめのないさま・判然としないさま」「氣抜けしてぼんやりしたさま・あきれるさま・呆氣にとられるさま」라는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茫々」가 지닌 의미와 동일하다. 1231년에 선승(禪僧)인 道元이 집필한 불교사상서의 「年来たくはふところの書籍を披尋するに、なほ茫然なり。」라는 글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茫然」은 二葉亭四迷의 작품을 비롯한 메이지기의 문학 작품에서 대부분의 경우 「茫々」의 소실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茫然」은 二葉亭四迷의 작품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단 1회를 제외하면 모두 「漠然としてとりとめのないさま・判然としないさま」「氣抜けしてぼんやりしたさま・あきれるさま・呆氣にとられるさま」로 사용되었다.

12) 劉玲(2004) 앞의 논문 pp.59-61

13) 劉玲(2004) 앞의 논문 p.67

5.2 「茸々(じょうじょう)」

다음으로는 메이지기 문헌이 초출로 판단되는 한어 오노마토편 중, 「茸々」를 대상으로 의미변화는 없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7) そこで茸々したバアポトニク蕨の類の美しい長い莖までが最う秋だけに熟え過ぎた。

중국 고전 문헌인 「白氏文集」에도 「茸々」의 사용례가 보이는데, 「毛髮が細く柔らかいさま」의 의미로 현대 중국어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日本国語大辞典』의 「茸々」항목을 살펴보면, 「草が鬱蒼と茂っているさま」의 의미로, 小林雄七郎의 저서 『薩長土肥』(1889)의 사용례를 초출로 기록하고 있다. 본고의 자료에서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을 위의 용례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나아가 현대 일본어에서도 동일한 의미용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어 본래의 의미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변한 데에는 메이지기 당시의 출판물 사정과 이에 따른 고유어 오노마토편에 관련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茸々」가 유입된 메이지기는, 모든 한자에 후리가나가 동반되는 총루비 형식의 출판물이 유행하였는데, 본고의 자료에 보이는 「茸々」의 후리가나는 모두 「もじゃもじゃ」로 표기되어 있다. 고유어 오노마토편 「もじゃもじゃ」는 「털 따위가 보기 흉할 정도로 덩수룩하게 난 모양」의 의미로 전 용례에 걸쳐 표기되어 「茸々」의 의미소실에 관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田島優¹⁴⁾는 자음 표기가 있으면서도 구태여 의미 표기를 후리가나로 사용한 것은 다의(多義)로 인한 의미한정, 의미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3 「悶々(もんもん)」

「茸々」에 이어 한어 오노마토편 「悶々」의 의미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8) 其政悶悶。

(9) 其政教實大、悶悶昧昧、似若不明也。(老子)

「悶々」은 앞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중국어에서는 노자의 『도덕경』을 비롯한 다양한

14) 田島裕(1998)『近代漢字表記語の研究』和泉書院

고전 문헌에서 전거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위의 용례문과 같이, 「無智を似て国を治めるさま」의 철학 및 정치에 관련된 의미로 사용된 「悶々」의 경우, 일본 고전문헌에서는 전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9) 思い切ってはいないが、思い切らぬ訳にもゆかぬから、そこで悶々する。

현대 일본어에서는 「悶々」을 「心配し悩むさま・心の晴れないさま」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 용례(9)와 같이, 메이지기의 문헌에서도 현대 일본어의 의미용법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중국 고전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悶々」에는 「無智を似て国を治めるさま」「心は暗く明察を用いぬさま」「もだえ苦しむさま」의 다양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어, 이 중 에서 메이지기에 유입될 시, 일부만 수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어 오노마토편은 고유어 오노마토편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등장인물의 복잡한 심정표현에 상당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悶々」이 유입되어 초출이 메이지기의 문학작품이라는 점, 고유어 오노마토편 「むしゃくしゃ」를 후리가나 취하여 「氣持が乱れたり、腹が立ったりするさま」로 의미를 한정하여 표현한 점이 의미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어로의 유입시기와 처음 사용된 문헌의 성격이 의미변용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6. 나가며

본고에서는 메이지기의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첩어형태를 띠는 용례만을 중심으로 중국 고전문헌 및 일본 고전문헌의 용례를 수록하고 있는 대사전류를 토대로 그 전거(典據)의 유무를 밝히고, 어떠한 의미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어에 있어 한어 오노마토편은, 언어학 연구에 있어서도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국어 화자는 중국어로부터 차용되었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大漢和辞典』과 『日本国語大辞典』 모두 등재되어 전거를 확인할 수 있는 한어 오노마토편의 대부분은 메이지기 이전에 수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중국 최고의 시가집인 『詩經』에도 전거가 확인되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한어 오노마토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이지기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어 오노마토편 중 「螢々」는 본고의 자료인 『浮雲』가

초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大漢和辞典』에 등재되어 전거가 확인되지만 『日本国語大辞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한어 오노마토펜은 「活々」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두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전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唁々」가 있었는데, 「唁々」는 문장에서 동사를 수식하여 오노마토펜로서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첩어형을 띠고 있다. 이에 「唁々」는 고전 중국어 오노마토펜의 조어법으로 二葉亭四迷가 고안한 일본제 한어 오노마토펜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섯째, 한어 오노마토펜이 일본어로 수용될 시,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고유어 오노마토펜과 유입시기, 처음 사용되는 문헌의 성격 그리고 후리가나가 의미변화에 관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상, 한어 오노마토펜의 수용실태 및 일본어에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고찰에서 처럼 두 사전과 한 작가의 작품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자료를 대상으로 개별 어휘에 따른 유입, 수용, 정착, 의미변화에 이르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参考文献】

- 崔玲愛(2007)『詩經「国風」豊語の音聲象徵 研究』『中國語文學論集』第47號
 현영미·이경규(2012)「二葉亭四迷『新編 浮雲』에 나타난 오노마토펜의 한자표기에 관한 일고찰」『일본어교 육학회』제61집
 上野力(1982)「明治中期における漢語の使用」『常葉学園短期大学常葉国文』第6号
 角川賢一(1993)「日本語の「擬似オノマトペ」-日本語と中国語の接点-」『オノマトピア』勁草書房
 佐藤友紀(2006)「明治期における擬音語・擬態語の漢字表記」『日本アジア研究』第3号
 賴惟勤(1964)「漢語オノマトペ」『言語生活』151号 至文堂
 鈴木泰(1982)「タリ活用形容動詞の通時的変化傾向とその要因」『武蔵大学文学会雑誌』第13卷
 鈴木修次(1979)「擬態語の中の漢語」『漢語と日本人』みすず書房
 田島裕(1998)『近代漢字表記語の研究』和泉書院
 中里理子(2000)「明治前期の和語系・漢語系オノマトペについて-『浮雲』を中心に-」『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第9卷
 山田孝雄(1940)「漢語の形態の觀察」『国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宝文官出版
 劉玲(2004)「漢語オノマトペの受容に関する研究」筑波大学博士学位論文
 藤堂明保(1969)『漢語と日本語』秀英出版
 李仁淳(2005)『漢語形容動詞辞典』제이앤씨
 天沼寧(1974)『擬音語・擬態語辞典』東京堂出版
 浅野鶴子(1978)『擬音語・擬態語辞典』角川書店
 小野正弘(2007)『日本語オノマトペ大事典』小学館
 野口宗親(1995)『中国語擬音語辞典』東方書店

- 藤堂明保(1978)『学研新漢和辞典』学習研究社
 飛田良文・浅田秀子(2002)『現代擬音語擬態語用法辞典』東京出版社
 山口仲美(2003)『暮らしのことば擬音語擬態語辞典』講談社
 愛知大学中日大辞典編纂処(1987)『中日大辞典』大修館書店
 諸橋轍次(2000)『大漢和辞典』大修館書店
 小学館国語辞典編集部(2000)『日本国語大事典』第二版 小学館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要旨〉

한어 오노마토펬의 일본어 수용에 관한 일고찰

본고에서는 메이지기의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첩어형태를 띠는 용례만을 중심으로 중국 고전문헌 및 일본 고전문헌의 용례를 수록하고 있는 대사전류를 토대로 그 전거(典據)의 유무를 밝히고, 어떠한 의미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첫째, 일본어에 있어 한어 오노마토펬는, 언어학 연구에 있어서도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국어 화자는 중국어로부터 차용되었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大漢和辭典』과 『日本国語大辭典』 모두 등재되어 전거를 확인할 수 있는 한어 오노마토펬의 대부분은 메이지기 이전에 수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중국 최고의 시가집인 『詩經』에도 전거가 확인되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한어 오노마토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메이지기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어 오노마토펬 중 「聲々」는 본고의 자료인 『浮雲』가 초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大漢和辭典』에 등재되어 전거가 확인되지만 『日本国語大辭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한어 오노마토펬는 「活々」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두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전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喑々」가 있었는데, 「喑々」는 문중에서 동사를 수식하여 오노마토펬로서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첩어형을 띠고 있다. 이에 「喑々」는 고전 중국어 오노마토펬의 조어법으로 二葉亭四迷가 고안한 일본제 한어 오노마토펬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섯째, 한어 오노마토펬가 일본어로 수용될 시,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고유어 오노마토펬와 유입시기, 처음 사용되는 문헌의 성격 그리고 후리가나가 의미변화에 관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The Exploration of the Japanese Adoption of Chinese Onomatopoe

This research has investigated original sources which demonstrate the way of having reduplicated (or ricochet) words used in modern Japanese literature during the Meiji period and the gradual changes in their meanings, by drawing on grand dictionaries containing their examples used in classical Japanese and Chinese literature.

Firstly, Chinese onomatopoe in Japanese has been hitherto given less attention in the study of linguistics, not to mention that Japanese native speakers have yet to realize the fact that it was originally borrowed from Chinese. Secondly, given that its original sources are listed in both the Great Han-Japanese Dictionary (大漢和辭典) and the Encyclopedia of Japanese Language (日本国語大辭典), it can be concluded that most Chinese onomatopoeic words have already been adopted and then started being used prior to the Meiji period. Especially, the fact that some of them could also be found in Shih-ching (詩經: the Book of Songs/Odes), the oldest existing collection of Chinese poetry, further supports the assumption that Chinese onomatopoeic words have long been used before the Meiji period. This research discovered that, of Chinese onomatopoeic words thought to be adopted in the Meiji period, “聲々” derived from Ukigumo (浮雲). Thirdly, this research also confirmed that the only Chinese onomatopoe, which is listed in the Great Han-Japanese Dictionary, but not in the Encyclopedia of Japanese Language, was “活々”. Fourthly, there is such a word as “喑々” which is listed in neither of them. Nevertheless, “喑々” functions as a perfect onomatopoeic word given its modification of a verb in a sentence, and takes the form of reduplicated word. Hence, it is likely that “喑々” might be a kanji-onomatopoeic word which Futabatei Shimei (二葉亭四迷) invented based on the Chinese-onomatopoeic word formation. Lastly, it can be assumed that, at the beginning of its gradual absorption into Japanese, Chinese onomatopoe might have affected proper onomatopoeic words with similar meanings and the period of their inflow into Japanese,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where their usage was first detected, and furigana’s involvement in the change in their meanings.